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4월 정기 당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4시 10분, 사무실).
2. 다음 주일은 자녀주일입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합시다.
3. 제 2차 성경통독 150일 운동 이번 주 범위는 시편 70편에서 시편 124편까지입니다. 통독하지 못한 부분은 과감히 내려놓고 그날 그날 범위에 맞추어 꾸준히 통독 합시다.
4. 교회 창립 19 주년(7월 15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실 좋은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성도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잘 준비 바랍니다.
6. 엔터테인먼트 북을 판매합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앱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 가격은 \$70입니다. 판매금액에서 \$140이 교회 선교헌금으로 돌려드립니다. 필요하신분은 박덕철장로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차드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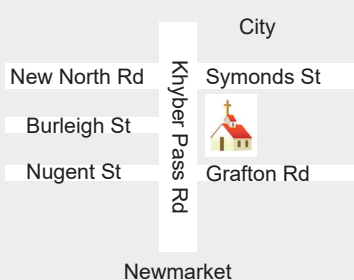
2018년 4월 29일 주일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섬기는 사람들



주일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박태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담임목사: 이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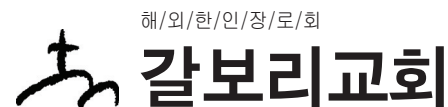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80:10-11
◎ 찬 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64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대 표 기 도	박병민 장로
성 경 봉 독	로마서 16:12-16
찬양대 찬양	나의 생명 되신 주/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2/ 이태한 목사
찬 송	나 맡은 본분은 595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5월 교회 사역

5월 6일(주일): 자녀주일
 5월 11일(금요일): 저녁기도회
 5월 13일(주일): 부모주일
 5월 30일(수요일): 공동체 주관예배
 (루마니아)

5월 기도 순서

이번 주 애찬: 이옥화 집사
 다음 주일: 손조훈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김진수 형제
 5월 9일 수요: 현석호 장로
 5월 9일 애찬: 임태원 집사
 5월 13일 주일: 정관영 장로
 5월 13일 청년부: 소정훈 자매

5월 예배 봉사자

예 배 안 내: 손조훈/이애란
 새신자안내: 차영철/심경순
 주 차 안 내: 김교섭/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유현남/민경아

금주의 기도제목

1.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2. 복음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며 감사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김광영, 경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성도들의 성경통독 후기입니다.

진정한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로 곤경에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 욥에 대한 소발의 질책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한 것에 불과하다. 욥을 더 곤경 속에 몰아넣기 때문이다. “너희는 참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는 말 속에서 욥은 위로는 커녕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때로 우리 남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 우리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남을 위로하기보다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식을 말하기보다 상대방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 내면의 깊은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참된 지혜를 넉넉히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을 받았고 사무엘은 법궤 옆에서 잠을 자다가 세 번에 걸 쳐 부름을 받았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명을 위해 부르실 때는 두 번씩 부르셨다. 하나님은 모세, 사무엘, 바울과 같이 큰 사람들만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같이 작은 사람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내가 연약해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 주시리라 믿는다. 요즘엔 아무도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옛 친구들은 연락이 끊어졌고 어머니조차도 ‘애비야’ 라고 부르신다. 불려져 본 기억이 가물가물한 내 이름을 불현듯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그때를 꿈꿔 본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앞부분과 뒷부분은 이해되며 읽혀지는데 중간에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는 부분부터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들었다. 이번에 또 읽으며 욥기 전체를 훤히 깨닫는 지혜를 주십사 간구하며 읽었다. 1:10절에서 사탄이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이제까지 내 삶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이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울타리가 되어 주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무슨 일에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한다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기 도	이기중권사
성경봉독	마태복음 8:28-34
설 교	떠나시기를 간구 하더라/이태한목사
찬 송	348장
주 기 도	다같이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 박예원 자매